

시가조선초급학교 창립 60 주년기념 차리티-골프

9월 2일(수) 오오쓰칸토리-東코-스가 69 명의 참가자들로 들끓었습니다. 코로나영향이 큰 속에서 교또·시가의 첫번째 차리티-모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교또학구제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60 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상품제공과 기부금만의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마친 이후의 폐회모임도 못가지는 상황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한 상품을 기뻐해주신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도 포함한 참가자들의 차리티금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으로 바뀌어질것입니다.



우리 아빠들이 멋지지요! 주차장공사완료!

9월 6일 (일) 주차장의 旧受水槽コンクリート撤去作業이 있었습니다. 더위가 아직도 남는데도 우리 아버지들이 하루로 작업을 끝내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는데로 우리 학교 주차장이 넓어지고 산뜻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유치반실과 교원실, 음악실의 문도 수리해주셨습니다. 아빠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Before

After①

After②



- 1日 (木) 休校 (秋夕)
- 4日 (日) 京都中高運動会
- 18日 (日) 公開授業、ウリハッキョマダン冊子配布
- 19日 (月) 代休
- 24日 (土) 給食、初6 : 京都朝中説明会、60周年実行委員会
- 31日 (土) 初5 : うみの子
- 27日~29日 高学年 : 中間テスト



《마음껏 배우고 힘껏 달라
붙고 정성껏 도와나서는
교육의 화원》

9 월 호
No. 3 2 9 号

배움터

ペウムト

2020年9月30日
発行 滋賀朝鮮初級学校
住所 大津市木下町2-24
☎ 077 (522) 1921

HP: <http://shiga-hakkyo.com/>
E-mail: siga_krs@yahoo.co.jp

초 4 여마노코학습

초급부 4학년은 9월 5일 葛川少年自然の家를 찾아가 山の子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학습을 잘하면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학생들. 葛川の 대자연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놀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체험으로 저가락, 손가락만들기, 불피우기 체험도 했습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귀중함을 배운 의의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학교설명회가 진행되었어요!



9월 26일에 학교설명회가 진행되어 3명 동무들이 우리 학교에 놀러왔어요. 초급부에서는 이름쓰기 연습이나 그림책을려주기를 했고 유치반에서는 제작놀이를 함께 즐겼어요♪





(학부모 감상문 발취)

올해 운동회는 코로나때문에 운동회를 못하는 학교들도 많은속에서 학생, 원아들 또 보려간 학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느낌이 큼니다. 소인원수이며 연습기간이 얼마없었던 운동회가 열심히 달려붙는 흐뭇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즐기는 모습에 가슴 뜨거워졌습니다.

매해하고 다른 운동회.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운동회를 맞이하도록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운동회에서도 역시 학생들의 표정이나 열심히 달리고 춤추는 모습, 졸업생들의 모습에서 여기서밖에 얻을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 마지막 가족들과의 춤인데 가족마다 집에서 연습한것이니 더 길게 하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회 수고하셨습니다. 暑い中での練習や指導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子どもたちも生き生きとして輝いていました。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保たれていて、安全・衛生面に配慮されて安心して、見る事ができました。...今年はお弁当なしで大変助かりました。午前中のみでしたが子どもたちの負担も少なく十分見応えありました。

시가조선초급학교 제 60 회 운동회



운동회 감상문

나는 청군이었어요. 달리기하고 장애물, 일륜차, 댄스, 이어달리기, 행진을 했어요. 나는 장애물이 참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뽕틀, 벽넘기, 뽕줄, 그물이 즐거웠기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등이었으니까 참말 기뻐요. 청군은 졌지만 내년은 반드시 이기고싶어요. 내년 운동회는 모두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기고싶어요!!

초급부 2학년 남학생

나와 순빈은 일륜차에서 빙빙돌리기를 하는데 몇번이나 실패를 했지만 당일에는 선생님이 없어도 할수 있었어요. 아주 기뻐요.

또 아빠, 엄마, 동무들과 모두 함께 춤을 추워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어달리기도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모두로 달렸고 응원도 해서 힘이 합쳐진 감이 했기때문이에요.

내년은 팀하고 힘을 합쳐 이기고싶어요.

초급부 2학년 녀학생